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internet use among school-aged children

장영애 · 박정희*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 송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Jang, Young Ae · Park, Jung Hee

Dept. of Consumer Science & Child Development, University of Incheon ·

Dep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internet use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215 children whose grade are 3rd and 5th selected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The statistics used for this data were t-test, one-way ANOVA(Duncan's test), and stepwise regression. The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academic achievement and birth order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variables on children's internet use, except for sex and grade. Results of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that the etiologic model of this study was more proper, and parenting behavior is more effective variable than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predicting internet use among school-aged children. Implica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decrease the degree of school-aged children's internet use, parents should do less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internet use, school-aged children

I. 서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 한국인터넷 백서』에 의하면, 2006년 12월말 현재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수는 3,412만명(이용율 74.8%)에 달해 2000년 12월말 19,040만명(이용율 44.7%)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성별 인터넷 이용율은 남성이 80.7%(1,850만명), 여성이 68.9%(1,562만명)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9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19세가 98.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30대가 94.6%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하 연령대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초등학생이 98.9%, 중학생이 99.9%, 고등학생이 99.6%, 대

학생이 99.8%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장소로는 가정이 97.0%로 다른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회사(직장)가 30.7%, PC방으로 불리는 상업적 공공접속시설이 22.6% 등으로 나타났다. 6-19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99.5%)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주로 커뮤니케이션(96.9%)과 여가활동(94.7%), 자료·정보 획득(71.5%), 교육·학습(6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0) 자료에서도 아동의 컴퓨터 사용용도는 오락과 게임이 81.5%(6-9세), 62.2%(10-14세), 35.8%(15-19세)로 유아나 청소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소 1주일간 컴퓨터 평균사용시간은 4.5시간(6-9세), 5.4시간(10-14세), 5.9시간(15-19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일보의 2002년 2

*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 Hee
Tel: 02) 3708-9242, Fax: 02) 3708-9118
E-mail: jpark@sewc.ac.kr

월 18일자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8.4%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인터넷을 사용하며,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게임(42.6%), 자료검색(22.8%), 메일사용(21.2%), 학습(4.3%)의 순으로 나타났다(김현지, 2004, 재인용).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조사한 박명순(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게임 등 오락이 43.2%로 가장 많았고 정보검색이 39.2%, 채팅, 동호회와 같은 통신활동이 17.8%로 나타났다. 특히 일일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80%가 넘었으며,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동들도 전체 24.6%에 이르렀다. 또한 조사대상 아동들 중 79.3%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17.1%의 아동은 인터넷 중독경향성을 보였으며 3.7%의 아동은 인터넷 중독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과다사용은 종종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Goldberg(1996)는 DSM-IV의 물질중독을 기준으로 최초로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와 개념적 진단준거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란 용어로 이를 대체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Brenner(1996)는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아동의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윤영민(2002)과 김정화(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김교현(2001), 김진숙 외(2000), 이혜진(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고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지영, 류현숙(2003)의 연구에서도 여아보다 남아가 인터넷 중독군과 중간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중독군의 경우 여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다는 연구보고가 우세하였다.

한편 김진숙, 최수미(2000), 윤영민(2000)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별로 인터넷 중독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정화(2002)의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간 인터넷 중독 경향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박영호 외(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중독율이 가장 낮았음을 보고한 반면, 박명순(2002)의 연구에서는 4, 5, 6학년 집단간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저학년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들에 비해 인터넷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학년들이 고학년들에 비해 인터넷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받았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숙(2002)의 연구에서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준범(2001)과 임혜숙(2002)의 연구에서도 낮은 학교성적과 인터넷 중독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출생순위의 영향력을 다루지 않았으나, 둘째 이하나 막내들이 첫째들에 비해 인내심과 의지력,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며 특히 외동이들은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 인터넷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순위는 인터넷 사용 정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보편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접속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주로 온라인게임이나 통신과 같은 오락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이 인터넷 사용을 적당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쉽게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폐해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도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도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성연(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의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녔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짧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eligman(1991)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때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는 김정화(2002)의 설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박희진(2003)은 가족구성이 핵가족화가 되고 부모의 맞벌이가 증가할수록 부모의 적절한 간섭이나 통제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인터넷에 무분별한 접근을 받게 되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그의 연구결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ung(1998)은 컴퓨터 이용에 대해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김현지(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은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은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이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자녀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사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나 특성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김진숙(2000)에 의하면, 인터넷이 가족에 미치는 문제로 가족과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가족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 가족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며, 통신이용시간에 대해서도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김종원(2002)은 인터넷 중독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님과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변화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 경향은 인터넷에 빠진 청소년이 가족과의 대화가 줄거나 가족행사에 불참하며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수면시간 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해지며,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고독감이 높으며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다(김현수, 2001; 송원영, 1999). 그러나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31.9%로 부모와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또래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 50.4%에 비해 인터넷 접촉경험이 훨씬 낮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이세용, 2000; 정명희, 1988).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살펴본 조성연(2003)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30분 이하인 경우가 많아 부모-자녀간 대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평일과 휴일의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서도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 평일은 부모 모두 청소년 자녀들과 1시간 이상 대화

를 할 때, 휴일은 전혀 대화를 하지 않거나 2시간 이상 오래 대화를 할 때 청소년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평일에는 하루 11-30분 대화를 하고, 휴일에는 31-120분 대화를 할 때 인터넷 사용시간이 가장 짧았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발달과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들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몇몇 연구들을 통해 대체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갈등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대체로 인터넷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의 차이와 이들 변인들이 인터넷 사용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터넷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특성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가정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와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한 2개 초등학교를 임의

로 선정하여, 각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총 220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다. 본조사 실시 전에 앞서 인천광역시 소재 1개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용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총 20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성별과 학년이 고르게 표집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교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30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각각 49명(24.3%)과 23명(11.4%)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는 둘째 이상이 93명(46.0%), 첫째가 84명(41.6%)으로 비슷한 비율로 표집되었고, 27명(12.6%)만이 외동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n=202)

변수	항목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자	101	50.0
	여자	101	50.0
학년	3학년	102	50.5
	5학년	100	49.5
성적	상	49	24.3
	중	130	64.4
	하	23	11.4
출생순위	외동이	25	12.4
	첫째	84	41.6
	둘째 이상	93	46.0

2. 측정도구

1) 인터넷 사용 정도 척도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에 응답하도록 되어있

며, 점수범위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에 사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 평균점수는 59.29점이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부모양육행동 척도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근거로 박영애(1995)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이한테 착하다거나 기특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와 같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며 칭찬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등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게 된다'와 같이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내서 야단을 치며 실수하면 핀잔을 주고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는 등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다면 거의 뭐든지 다 하게 해준다'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며 잘못을 모른 척 하는 등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분류된다.

본 척도는 각 소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부모의 평소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비슷하다(4점)'에서 '아주 다르다(1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범위는 각 소척도별로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소척도별 평균점수는 온정·수용적 양육태도가 25.99점, 거부·제재적 양육태도가 34.32점, 그리고 허용·방임적 양육태도가 37.27점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각 소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75, .75, .71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CI;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초등학생용으로 사용한 백승미(2003)의 2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없이 의논할 수 있다'와 같이 부모-자녀 상호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정도가 높은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와 '내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와 같이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며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는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형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소척도별로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범

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22.98점, 문제형 의사소통 평균 점수는 39.13점이었다. 각 소척도별 신뢰도는 각각 .76과 .7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 12.0)를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에 따른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사용

조사대상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2>), 성별과 학년,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성적에 따라서는 $F=7.21$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어, 자신의 성적을 '하'라고 지

각한 아동들이 6평균 68.04점으로 인터넷 사용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중'이 60.34점, 그리고 '상'이 52.40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의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one-way ANOVA 분석에 앞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빈도분석으로 산출한 세 집단 절단점(cutoff score)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온정·수용은 28점 이상을 '상', 24~27점 사이를 '중', 23점 이하를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거부·제재는 37점 이상을 '상', 32~36점 사이를 '중', 31점 이하를 '하' 집단으로, 허용·방임은 40점 이상을 '상', 36~39점 사이를 '중', 35점 이하를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형의 경우 26점 이상을 '상', 19~25점 사이를 '중', 18점 이하를 '하' 집단으로, 문제형은 42점 이상을 '상', 37~41점 사이를 '중', 36점 이하를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형의 경우 점수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인터넷 사용 정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거부·제재형의 경우는 집단별로 $p<.05$ 수준에서 $F=3.516$ 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어,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상'인 집단의 아동들이 인터넷 사용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 집단과 '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따라서는도 $p<.01$

<표 2>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차이

변수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F	Duncan
성별	남	101	58.45	17.08	200	-.67	
	여	101	60.13	18.23			
학년	3학년	102	57.69	14.97	200	-1.30	
	5학년	100	60.93	19.94			
성적	상	49	52.40	9.03	199	7.21***	a
	중	130	60.34	17.52			
	하	23	68.04	25.96			
출생 순위	외동이	25	62.88	18.97	199	2.57	
	첫 째	84	56.03	14.87			
	둘째 이상	93	61.27	19.22			

*** $p<.001$

<표 3>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의 차이

구분	변수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Duncan
부모 양육 행동	온정 수용	상	73	57.05	14.71	2	2.815	
		중	75	58.01	13.40	197		
		하	53	64.13	24.78			
	거부 제재	상	73	63.21	22.65	2	3.516*	b
		중	71	58.88	15.02	198		
		하	57	55.10	11.46			
허용 방임	상	73	64.82	22.72	2	6.190*	b	
	중	88	55.37	12.47	199			
	하	41	57.87	14.31				
의사 소통 유형	개방형	상	71	59.19	14.85	2	6.847***	a
		중	75	54.56	12.72	197		
		하	56	65.76	23.78			
	문제형	상	68	66.29	23.70	2	10.757***	b
		중	81	58.04	12.63	199		
		하	53	52.22	10.79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F=6.190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모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 점수가 '상'인 집단의 아동들이 '중'이나 '하' 집단의 아동들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가 거부·제재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할 경우 자녀가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와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p<.001 수준에서 F=6.847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어, 부모-자녀간 개방적인 의사소통 점수가 '하'인 집단의 아동들이 '상'이나 '중' 집단의 아동들보다 인터넷 사용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도 p<.001 수준에서 F=10.757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상'인 집단의 아동들이 '중'이나 '하' 집단 아동들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대화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보다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인터넷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 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변인들간 상관계수가 .7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VIF 계수는 1.036~2.620으로 나타나 투입된 변인 모두 4를 넘지 않았으며 VIF 계수도 1.758로 2에 가까워 잔차간 자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의 4개 아동관련 변인이 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MODEL 1]의 설명력은 10.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설명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F=5.136).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 학년, 출생순위는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적에 따라서는 $\beta=.28$ 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낮은 아동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이 학습의 목적보다는 오락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들이 학습보다 인터넷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

<표 4>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

관련변인		인터넷 사용정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 관련변인	성 별	2.00	.05	-.27	-.00	.31	.00		
	학 년	1.05	.05	.88	.04	.45	.02		
	성 적	8.71	.28***	6.25	.20**	6.11	.20**		
	출생순위								
	첫 째	-6.81	-.18	-10.07	-.27***	-10.58	-.29***		
	둘째이상	.49	.01	-2.72	-.07	-2.53	-.06		
부모의 양육태도	온정 / 수용			.12	.04	1.72	.05		
	거부 / 통제			.80	.26***	.57	.19*		
	허용 / 방임			1.04	.32***	.95	.29***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 방 형					.28	.12		
	문 제 형					.79	.26***		
R ²		.101		.321		.351			
R ² 증가량		.101		.220		.030			
F 값		5.136***		11.837***		10.897***			

a. ** p < .01 *** p<.001

b. 성별(남아=0), 출생순위(외동이=0) 변인은 더미변수화 함.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아동관련 4개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MODEL 2]의 설명력은 32.1%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설명모델임이 입증되었다(F=11.837). 아동관련 변인의 경우 [MODEL 1]에서 나타났던 성적의 영향력이 [MODEL 2]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며(β=.20, p<.01), 출생순위로 부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β=-.27, p<.001). 즉, 외동들이 첫째들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둘째 이상 아동들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는 거부·통제형과 허용·방임형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β=.32, p<.001),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β=.26, p<.01) 자녀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은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가 거부·제재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 보다는 인터넷에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MODEL 3]은 아동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모델 설명력은 35.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설명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F=10.897). [MODEL 3]에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은

로는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β=.28, p<.001), 출생순위 중 첫째(β=-.29, p<.001), 부모-자녀간 문제적 의사소통(β=.26, p<.001), 성적(β=.20, p<.01),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거부·통제적 양육태도(β=.19,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첫째 보다는 외동들이,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문제적인 특성을 보일수록,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거부·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ODEL 1]의 설명력은 10.1%, [MODEL 2]에서는 32.1%, 그리고 [MODEL 3]에서는 35.1%로 나타나, 세 모델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모델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2]로의 R² 증가량이 22.0%로 나타났으나 [MODEL 3]에서는 R² 증가량이 3.0%로 나타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이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더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허용·방임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좀 더 적절한 관심과 보호, 통제로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를 갖기 쉬운 외동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혹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허용·방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녀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특히 많이 요구된다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정환경 내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한 2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총 20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및 출생순위에 따른 인터넷 사용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영민(2002)과 김정화(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김교현(2001), 김지영, 류현숙(2003), 김진숙 외(2000), 이혜진(2001)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터넷 중독 경향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다룬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별 인터넷 중독 경향을 연구한 김진숙, 최수미(2000), 윤영민(2000), 그리고 김정화(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경향이나 그 사용 정도에 있어서 대체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따라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이나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출생순위의 영향력이 좀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별, 학년, 출생순위와는 달리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숙(2002)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춘범(2001), 임혜숙(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근면성과 사회성을 길러야 할 아동기에 인터넷을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성적저하 뿐 아

니라 학교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도가 가정내에서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형의 경우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부·제재형과 허용·방임형은 $p<.05$ 와 $p<.0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일때 보다는 거부·제재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선택했을 때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더 증가하므로, 지나치게 거부·제재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이기 보다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보다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그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이 더욱 증가함을 보고한 Seligman(1991), 김현지(2004), 조성연(200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화를 내거나 자녀들의 실수에 자주 야단을 치는 등의 거부·제재적이거나 혹은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게 놔두고 잘못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등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신 자녀를 늘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칭찬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 $p<.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이 '하'인 집단이 '중'이나 '상'인 집단에 비해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높았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이 '상'인 집단이 '중'이나 '하'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높았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대화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보다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인터넷 사용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한 김진숙(2000), 박희진(2003), 정명희(1987), Young(199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불신하고 실수를 자주 꾸짖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

함으로써 자녀들이 인터넷에 사용하는 대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기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넷째, 아동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첫째 보다는 외동아들이,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문제적인 특성을 보일수록,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거부·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출생순위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외동아들이 첫째들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였고 둘째이상 아동들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를 갖기 쉬운 외동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혹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허용·방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특히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특히 요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박희진(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 더욱 지지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10.1%, 32.1%, 35.1%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MODEL 2]로의 R2 증가량이 22.0%, [MODEL 3]의 R2 증가량이 0.30%로 나타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훨씬 더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허용·방임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좀 더 적절한 관심과 보호, 통제로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만큼 영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간 대화방식 보다는 기능적이고 상호지지적이며 개방적인 대화패턴이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일부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아동들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표집 및 심층면접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인터넷 사용, 초등학교 아동

참 고 문 헌

- 김교헌 (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컴퓨터 중독. 학생생활연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8, 41-62.
- 김정화 (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류현숙 (2003)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9(2), 198-205.
- 김진숙 (2000)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실태, 청소년의 PC중독 실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진숙, 최수미(2000) 상담사례연구집.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진숙, 최수미, 강진구 (2000) 청소년의 PC중독.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진순 (2002). 초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61-874.
- 김현수 (2001) 인터넷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정보통신윤리,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박경호 외 (2001) KIAS : 한국형 인터넷 중독척도와 이를 이용한 국내 실태조사. 한국통신학회논문집, 26(12), 292-304.
- 박명순 (2002).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1(2), 21-35.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진 (2003)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미 (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 (2002) 인터넷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인

- 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제2차 포럼.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세용 (2000)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혜진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요인과의 관계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숙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 (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2003) 부모양육방식과 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청소년복지연구, 5(2), 47-59.
- 조준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 한국인터넷백서. <http://isis.nida.or.kr>
- Brenner, V (1996) An initial report on the online assessment of internet addiction: the first 3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Marquett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d SUNY at Buffalo.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uler/psyber/supportgp.html>
- Seligman, ME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Young, KS (1998) *Caught in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7. 8. 10 접수; 2007. 11. 20 채택)